

초등학교 예비소집...불참아동 소재 점검

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가정방문 소재·안전 확인 필요시 경찰 수사도 진행

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광주·전남 등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집중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예비소집은 오는 28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내년 1월 10일까지 지역별로 실시된다. 같은 지역에서도 학교별로 일정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취학통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광주의 경우 예비소집일은 2019년 1월 9일과 11일 두 번에 걸쳐 진행되지만, 시간

은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기재된 시간을 확인해 취학대상 아동과 함께 예비소집에 참석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참석이 어려우면 소집일 전에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이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에는 입학해야 하는 학교에 취학 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절차 없이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우선 연락·가정방문·내교 요청 등을 할 수 있고, 이후 경찰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당국은 지난 2016년 '월영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자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학생을 비롯해 무단·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소재 확인을 강화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2019학년도 취학대상 아동 전체의 소재 확인을 위해 모든 초등학교가 예비소집을 한다"며 "취학 등록뿐 아니라 학교를 둘러보고 입학 준비 안내를 받을 기회인 만큼 자녀와 함께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기쁘다 구주 오셨네"...성탄미사 25일 오전 광주시 북구 임동성당에서 열린 성탄미사에서 신도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도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해상 음주운행 처벌 강화 목소리

처벌 기준 육상과 0.03%로 동일...적발 건수도 매년 꾸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해상음주 운항의 처벌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상음주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다, 통상적으로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육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25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윤창호법 제정 이전까지 육상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0.05%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 등 처벌을 받았지만, 해상에서는 0.03% 이상만 돼도 해기사 면허 정지 대상이 됐다. 해상음주 운항 단속 규정은 불과 20년 전인 1998년에 신설됐다. 처음에는 해상

음주 운항 처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8%였지만, 2011년 0.05%에 이어 2015년 0.03%로 강화됐다. 그러나 윤창호법 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최저 음주 혈중알코올농도는 앞으로 육상이나 해상이나 0.03%로 동일해진다. 육상에서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기준을 0.1%에서 0.08%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의결됐고,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저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사람에게 따라 측정될 수 있는 수치라는 점에서, 해상음주운항 단속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해양경찰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벌금상향 등 음주 운항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상음주 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다. 해경청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최근 6년간 전국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가 해경에 적발된 건수는 620건에 이른다. 이 기간 음주 운항으로 인한 선박 사고도 75건이나 발생했다. 이 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이는 모두 8명이었다. 지역별로는 목포와 통영 해상에서 각각 12건의 음주 운항 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여수·부산·창원 해상에서 각각 6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소비자원 캐리어 9개 조사

일부 안 열리고 충격에 취약

시판 중인 여행용 가방(캐리어) 대부분은 품질이 대체로 양호했으나, 일부는 충격에 약하고 안감 염료가 집에 묻어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의 일반형 캐리어 7개와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기능을 보유한 스마트형 캐리어 2개 등 총 9개 제품을 대상으로 내구성, 색상변화, 소재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일반형 캐리어인 내셔널지오그래픽(N185ASU140, 블랙), 더플(NEW DPC015-20GY), 샤오미(샤오미 여행용 캐리어 20인치, 블랙), 썬사나이트(DV0*09001), 아메리칸투어리스트(37G*09004), 엘트(EH17101BL) 제품과 스마트형인 코와로봇(CWL16S1, 팬텀블랙), 헤이즈(15034-0001-21) 등 총 9개이다. 파손 여부를 평가하는 내충격성 시험 결과, 코와로봇은 90c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잠금장치가 이상이 발생해 가방을 여닫기 어려웠다. 반복해 가방을 여닫을 때 지퍼나 잠금장치가 고장 없이 작동하는지를 평가하는 개폐 내구성 시험에서는 헤이즈가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떨어졌다.

마찰로 가방 안감의 색이 묻어나는 평가에서는 코와로봇 제품이 안감과 지퍼 마찰하는 경우 안감 염료가 묻어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또는 온라인에 표시된 소재(폴리카보네이트 100% 또는 폴리카보네이트)와 실제 소재를 조사한 결과 썬사나이트 2개 제품을 제외한 7개 제품은 표시된 소재 외에 폴리에틸렌 등 다른 소재가 검출됐다. 이에 대해 내셔널지오그래픽·샤오미·엘트는 교환 또는 환불, 나머지 업체는 표시·성능 개선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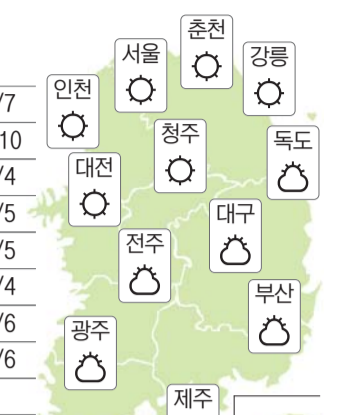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9 해질 17:27 달뜨기 21:29 달짐 10:35

오후부터 추워요

오후부터 기온 큰폭 떨어지고 바람 강해 추워지겠다.

광주	구름많음	2/7	보성	구름많음	2/7
목포	구름많음	3/5	순천	구름많음	3/10
여수	구름많음	4/9	영광	구름많음	0/4
나주	구름많음	0/7	진도	구름많음	2/5
완도	구름많음	4/8	전주	구름많음	2/5
구례	구름많음	1/8	군산	구름많음	1/4
강진	구름많음	2/7	남원	구름많음	0/6
해남	구름많음	1/6	흑산도	구름많음	6/6
장성	구름많음	1/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2.0	북~북동	1.0~3.0
	먼바다	북~북동	1.0~2.5	북~북동	2.0~4.0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5
	먼바다(동)	북서~북	0.5~1.5	북서~북	1.0~2.5
	먼바다(서)	북~북동	1.0~2.0	북~북동	2.0~4.0

◇생활지수

눈	높음
뇌졸중	높음
감기	보통
미세먼지	보통

◇물때

목표	간조		만조	
	09:38	22:20	04:24	17:12
여수	05:13	17:53	11:50	23:59

◇주간 날씨

27(목)	28(금)	29(토)	30(일)	31(월)	1/1(화)	2(수)
☁	☁	☀	☀	☀	☀	☀
-5/0	-5/-2	-6/0	-4/1	-4/3	-3/3	-3/4

내일 오후 한차례 눈 온 후 다음주까지 강추위

광주·전남 지역은 27일 오후부터 28일 오전까지 한차례 눈과 함께 강추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6일 광주·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까지 서해안 일부지역과 내륙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고 25일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0~4도, 낮 최고기온은 4~9도로 분포해 평년보다 아침기온은 조금 높겠으나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발달하는 찬 공기로 인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당분간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27일 오후부터 28일 오전까지 한차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 눈과 함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영하권의 날씨가 다음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주의... "소아 이상행동 발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복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타미플루제제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국내 의학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서한을 통해 비록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의 경우 타미플루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해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소아·청소년에게 이 약을 처방하거

나 지어줄 때는 이상행동 발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적어도 2일간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할 것을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이상 사례 등이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홈페이지 www.drugsafe.or.kr)에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2일 부산에서 타미플루를 먹은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1652 point, 68247581 point, 251649783 point, 130758492 point, 246371280 point, 462810973 point, 576214302 point, 691749809 point, 874112000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대: 430-8801